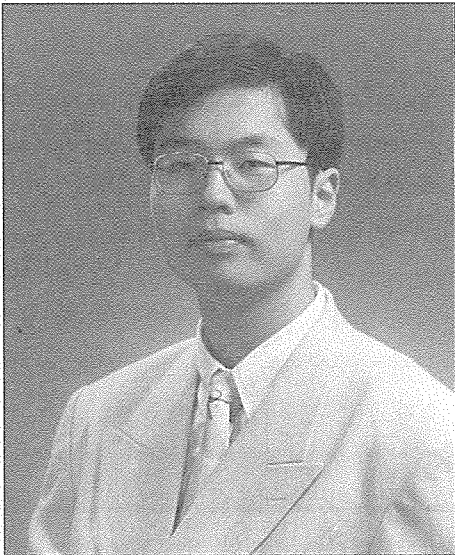


사장하는데 나이가 상관있나요? 18세 소프트웨어 캡틴 이상협

벤처기업 생존율 0.05%. 경력없고 백없고 돈 없는, 학력이라고 해봤자 고졸이 전부인 18세 이상협 군이 소프트웨어 벤처기업 <화이트미디어>를 창업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학교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는 어엿한 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카테일 97'로 해외수출까지 일궈낸 그의 천재성에 소프트웨어업계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 정도경영을 주장하며 제품하나 믿고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이상협 군의 안식처, 화이트미디어를 방문한다.

글 / 안정미 기자



화이트 미디어 대표이사 이상협

어렸을 땐 저 꺼병이었어요

“나 학교 그만둘래!!!”

“공부할테니까 컴퓨터 돌려줘!!!”

182cm의 훌쩍 큰 키, 두꺼운 안경, 빛나는

눈빛, 화이트미디어의 대표이사 이상협. 그의 학교생활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범적인 학생의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학교에서 그의 특기는 '딴 생각하기', '공부 안 하기', '먼 창밖 바라보기', '학교 안 가기'.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하면 '컴퓨터에 관련된 상타기'.

학교는 뭐든지 일률적으로 가르치고 주입시키기 때문에 단 하루도, 아니 그의 말로는 단 1초도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다고 한다. 학교에 가는 것은 곧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이렇게 학교생활을 싫어해 멍하게 창밖을 보고 있고 딴 짓만 하니 꺼병이란 별명이 절로 붙었다.

학교가기가 죽기보다 싫었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이제 나이 18세,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의 모습에서 아직 학생의 모습이 채 가지지 않은 풋풋함이 느껴지지만 어엿한 사장의 기품도 풍긴다.

“컴퓨터는 마치 캔버스와 같죠. 제가 생각하는 것을 자유롭게 만들어내고, 좋아하는 것을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학교에서의 공부와는 정반대죠.”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컴퓨터를 만지기 시작한 것이 운명의 전환점.

지금까지 3년 연속 정보통신부 장관대상 수상, 신기술 아이템 선정, 교육용 인증마크 획득, 장영실상 수상, 케이티마크 획득이라는 큼직한 상들을 휩쓸어온 그는 학교에서는 문제아로 통하는 공부를 지독히도 안 하는 학생이었다.

그는 컴퓨터 분야만큼은 남보다 앞선다고 자부하지만 다른 쪽은 엉망진창이라고 자신을 평한다. 가족이 이사를 가면 일주일동안 집을 못 찾았고 신주머니와 도시락 놔두고 오기 일쑤이고 엉뚱한 생각하느라 교실에서는 창밖만 바라봤다.

하지만 그는 보통 문제아와는 차원이 다른 우등(?) 문제아.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 다니기 싫어하는 것과 컴퓨터가 너무 하고 싶어서 학교 다니기 싫은 것과는 확실하게 틀리다.

‘건방진 놈, 공부나 하지’, ‘나중에 잘 돼봤자 용산바닥에서 컴퓨터나 조립하고 있을 거면서...’ 이렇게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꼴사납게 바라봤던 학교선생님도 친척도 이제 그에게 아무말 못하고 묵묵히 그의 활동을 지켜볼 뿐이다.

책값 달렸다고 혼난 사람은 저밖에 없을걸요

그의 컴퓨터 스승은 다름아닌 책. 국민학교 4학년때부터 컴퓨터를 다루기 시작한 그가 컴퓨터를 특별하게 배울 곳도 없었지만 마음놓고 책을 사보기도 어려웠던 넉넉한 집안 형편이 아니었기에 한달에 십만원씩 투자하면서 컴퓨터에 대한 책을 독파하는 것도 눈치가 보였다. 급기야 ‘컴퓨터책 사 줄 돈은 없다’라고 하는 어머니의 따가운 목소리를 듣는 신세가 된 적도 있었다.

컴퓨터에 너무 매달리고 공부를 안 한 나머지

지 40등 밖으로 떨어지자 노발대발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컴퓨터를 감춰냈다. 공부 열심히 하면 컴퓨터를 돌려주겠다는 말에 죽어라 공부한 그는 1등을 했다. 그리고 다시... 40등 밖으로 밀려났다.

설날에 부모님한테 세배할 때도 아버지한테 절하고 컴퓨터 키 한 번 누른 뒤 실행되는 동안 어머니에게 절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는 올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월에 화이트미디어를 창업했다. 작년 한보사태의 영향으로 아버지가 부도를 당해 가세가 더욱 기울어져 그가 서울에 올라올 당시만 해도 집안에 돈이 없어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차비를 꺾어서 올라왔다. 처음에는 제품도 외상으로 찍어내고 제품하나 믿고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6월 11일 인제대학교에서 벤처기업과 한국소프트웨어에 대한 강연을 했다

그의 회사는 오후 1시가 출근시간이다. 그리고 퇴근은 새벽 5시에 한다. 따라서 그의 사무실이 곧 침실이요 집이다. 5명으로 이루어진 조그만 사무실에서 서로 챙겨주고 아껴주며 단합된 힘을 발휘해 프로그램 개발에 열중하

고 있다.

그의 화려한 수상경력 덕분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들어갈 기회가 왔다. 물론 지금은 한 번쯤 다녀봐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학교에 대한 미련이 전혀 없는 그는 회사에 피해가 된다면 금방 그만둘 것이라고 말한다.

각테일 마시지만 말고 컴퓨터에 사용해 보세요

그를 이처럼 유명하게 해 준 작품은 바로 '각테일 97'.

각테일 97은 비디오와 사진, 각종 음향을 CD롬에 담아주는 종합 멀티미디어 제작 프로그램이다. 각테일 97로 신소프트웨어상품대상,

케이티마크를 획득하고 화이트미디어까지 창업하게 된 셈이다. 각테일이란 이름은 글, 음악, 동영상이 섞일 때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뜻으로 명명한 것이다. 이전에는 해외를 점령하자는 뜻으로 광대토대왕이라 명명했는데 수출하는 데는 영어이름이 적당해 제품 이름을 각테일로 바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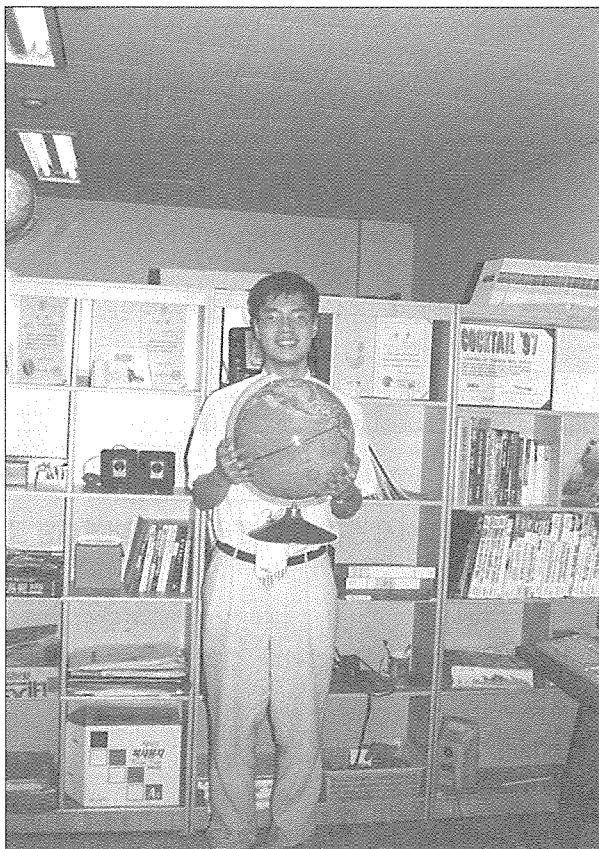
각테일 97이 사랑받는 이유는 초보자도 사용하기 편하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미 국내총판에 15억 규모의 3만개 판매 계약을 맺었고 삼성을 통해 수출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외국제품이 1백만원에서 2백만원대에 팔리는 데 비해 십만원 이하의 돈으로 그만큼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각테일 97은 해외수출에도 청신호다.

자나 깨나 최고의 프로그램 만들고 싶다는 생각뿐이에요

“진정한 예술가가 하나의 멋진 예술작품을 남기고 싶어하듯, 저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그것으로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되면 부수적으로 많은 것이 따르겠지만 우선은 많은 사람이 원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어요.”

아직은 어린 나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핀다. 그리고 그의 경영 원칙은 정도경영. 기술 하나만 가지고 전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키우는 것이 그의 꿈이다.

사이버 세계에는 영원한 강자가 없다며 제품 하나 믿고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이 수줍으면서도 당찬 청년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그는 3년 연속 정보통신부 장관대상수상, 신기술 아이템 선정, 교육용 인증마크 획득, 장영실상수상, 케이티마크 획득등의 굵직한 경력을 갖고 있다